

## 기도 4

### 아버지여

누가복음 11: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나?

나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 가셔서 아버지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내 아들과 함께 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게 된 기회가 되었다.

내 아들이 미국에서 와서 약 12일 동안 함께 해주었다. 그는 나와 함께 있는 동안 쉬지 않고 나의 필요를 찾아서 도와주었다. 그 중에도 야고보서 유튜브 강의 내용을 정리하여 책을 한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나의 질문을 상세히 답을 해 주었고 누구에게서도 배울 수 없는 나에게 필요한 컴퓨터 지식을 가르쳐 주었다. 그동안 내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문서 파일을 잘 정리해서 icloud에 올려 주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두 차례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일생 처음으로 아들과 가장 가까이 함께했고 그러면서 느낀 점이 내 아들은 참으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섬김이 아주 몸에 배었고, 무슨 부탁을 하든지 즉시 도움을 주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쉬임 없이 일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갔다. 아들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버로서의 자식에 대한 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감히 하나님과는 비교 할 수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 어떤 심정일가 하는 것을 어렵듯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다. 샤머니즘에도 기도가 있다. 내 모친은 어렸을 때 내 생일 날에는 상위에 냉수 한 그릇을 떠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얼마나 유창하게 간절히 기도하는지 감동이었다. 많은 종교에서 기도의 특징은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든지 나의 소원만 들어 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아버지라는 것이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성공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 “아버지”라는 한 단어로 책을 한 권을 쓸 정도였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

요한복음 1:12-13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20: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로마서 8:14-15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절실한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구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 못 된 것이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못 되었다든가 아버지가 그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그런 육체의 아버지와는 다르다.

마태복음 7: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비록 우리가 잘 못을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신 분이 아니다. 물론 성경은 죄를 범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이사야 59:2).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

성경에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생생하게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 15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 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어떻게 영접하는가?

누가복음 15:20-23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 못을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기쁘게 환영 해 준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인간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도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자유롭게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하여 많은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체 기도제목만 나열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절실한 필요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필요를 채우려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다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 낙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허드슨 테일러**는 필요한 것을 절대로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다고 한다. 한번은 허드슨 테일러가 **무디가 집회하는 집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군중이 참여하여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무디는 이 때야 말로 선교헌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헌금 광고를 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는 기겁을 하면서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만류했다, 그러자 무디는 선교비를 많이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 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한 사람은 50불을 헌금하려고 했다가 헌금이 없다고 하니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50불 아낀 것을 좋아하는 자기 자신이 한심 스러워 회개하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부에 500불을 보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실한 우리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실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 때야 말로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해야 할 때이다.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스러운지 모른다.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과 사회적인 약자 편에 서기보다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그래서 교회는 무력해지고 세상에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젊은 날 학생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자 교회 지도자들이 학생 사역의 도움을 받아 교회를 갱신하고 제자 운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의식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학생 단체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학원 복음화 협의회”를 조직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선교 한국”과 같은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될 때 교회를 자극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선교단체조차도 영적인 힘을 잃어 가는 모습을 보면 더욱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다, 선교단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캠퍼스 복음화와 지역 복음화 성서 한국 세계선교를 감당하기를 바랐지만 나의 기대와 꿈은 사라져 간다는 생각이 나를 너무 마음 아프게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무소 부재 하시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준

다. 나는 요즈음 기도할 때 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분명해 질 때 기도한다는 것처럼 큰 확신과 소망을 주는 일은 없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서의 친밀 감을 가지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깨달아질 때 우리의 기도는 훨씬 쉬어지고 확신이 넘치고 소망을 갖게 해준다.

히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